

문화

대중이 공감하는 新불교음악 국악 선율에 담아내

5집 '추억' 발매한 해금연주가 성의신 씨

"5집 앨범은 추억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인생서 세월이 지나면 추억만 남잖아요. 40년 해금 연주를 하다보니 어느날 제 손에는 해금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7080세대이니 당시의 가요 팝 등을 국악으로 연주해 보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음반이죠."

해금연주가 성의신 씨(54·숙명여대 겸임교수)가 해금 인생 40년, 앨범 발매 10년을 기념하는 5집 앨범을 발표했다.

추억을 담아낸 이번 앨범에는 꽃밭에서, 사랑이여,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사랑의 기쁨 등 11곡이 실렸다.

"국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기에 '추억'이라는 아련한 부제까지 더해지니, 바쁜 일상 속에 있고 지냈던 행복한 지난날을 추억할 수 있도록 편한 음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2004년 'The Moon In The Clouds'로 첫 앨범을 낸 그는 'The Hill Of Memory' '열 두 송이 연꽃노래' '미래회상' '우리의 소리에, 마음을 놓다' '해금, 첼로를 만나다: 소박한 선율' 등의 음반으로 국악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첫 앨범으로 낸 'The Moon In The Clouds'는 뉴에이지 음악을 국악으로 풀어내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당시 각종 음원차트 10위권 안에 머무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첫 앨범을 낼 때는 명상음악을 해금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음반제작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마땅한 작곡자를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음악으로 만든 작곡자를 만나면서 곡을 의뢰하게 됐어요. 어느날 12곡이 작곡자로부터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명상음악보다는 뉴에이지에 가까웠죠. 많이 망설였는데



해금연주가 성의신 씨가 해금 인생 40년, 앨범 발매 10년을 기념하는 5집 앨범을 발표했다.

명상음악 발원하며 첫앨범 발매 국악의 대중화로 호평 받아 93년 국악 실내악단 마하연 창단 불교음악 새로운 변화 시도

주변의 독려로 음반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런 풍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제 음악처럼 대중들께 익숙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명상음악과 불교를 기반으로 국악을 풀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 찬불가를 기

반으로 한 '열 두 송이 연꽃노래'와 해금 중심의 영상회상 '미래회상'을 발매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가 이끄는 불교 실내악단 마하연의 1집으로, 범패를 새롭게 해석한 '마음으로 울리는 나의 노래'를 내놓았다.

"사실 우리 주변에 불교음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교음악에 접근하고 이를 표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 범패를 떠올렸죠. 범패는 불교 의식용 음악이지만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 하나이니 여기에서 좋은 선율을 끄집어내어 음성공양하는 마음으로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 음반 10개를 내는 것보다 더 뿌듯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워낙 무거운 주제라 공연할 곳도 마땅치가 않았고 대중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교음악에 대한 열원이 컸던 성 씨는 지난 1993년 KBS 관현악단의 불자 단원들을 모아 불교 유일의 국악 실내악단 '마하연'을 창단했다.

현재 불교진흥원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 마하연은 국악은 물론 찬불가,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동국대병원, 선유도, 최순우 옛집 등 시민들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했으며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공연도 앞두고 있다.

"2010년에 KBS 국악대상과 불교진흥원 대원상을 동시에 받으며 불교음악을 계속 해나가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저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불교음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악인이니 불교를 국악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죠. 내년쯤 마하연에서 불교 관련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늘 새로운 불교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ryunbul.com

고찰 풍경 속에 담긴 해탈의 꿈

좋은 풍경은 시심을 돋우지만 풍경만으로 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풍경에 인연된 이야기가 녹아 있어야 한다. 시속의 이야기는 어떤 사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묘한 상징이 되어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풍경과 이야기가 잘 정제된 시는 맛이 잘 든 술과도 같다고나 할까?

세속 일을 떨치고 싶은 마음
신록사의 경우 누구나 훌쩍 반할 절경과 천년 고찰에 담긴 이야기가 있으니 시창작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암평첩가반각(長巖平 可盤脚)
정풍은랭고림유(靑楓銀杏高林幽)
부시징담백척강(俯視澄潭百尺?)
청소회연경양후(淸幽劇然驚陽侯)

긴 바위가 평평하여 앉아서 월만한데 푸른 단풍 은빛 은행에 숲은 그윽하여라. 맑은 못물 굽어보니 백 척이 남을 듯해 맑은 휘파람을 불어 양후를 놀라게 한다.

박은(林間 1479~1504)의 '밤에 신록사(神勒寺)에 묵으며 달빛 비친 벽담(壁潭) 아래에서 술을 마시다'라는 시 앞부분이다. <음취현유고(音醉顯遺稿)> 제2권에 실린 칠언고시인데, 시의 제목에 '승려 법희(法熙)·신련(信連)·의조(義照)·처관(處寬) 등 네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박은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로 선발되어 문재(文才)를 주목받았던 선비다. 성품도 강직하여 벼슬살이에 뜻을 두지 않았지만, 갑자사화로 옥사(獄死)했다.

시에서 박은도 '맑은 휘파람(淸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앞에서 묵은 이색의 시에 나오는 '맑은 휘파람'을 속세의 번뇌를 떠난 '깨달음의 경지' 즉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읽었다. 박은의 경우도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다.

사실, '맑은 휘파람을 불어 양후를 놀라게 한다'는 대목은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회남자> 남명훈(覽冥訓)에 "무왕(武王)이 주(紂)를 치러 가는 길에 맹진(孟津)을 건너는데 양후(陽侯)의 파도가 흐름을 거스르며 격렬히 일어났다."는 대목이 있고, "양후는 능양국(凌陽國)의 제후로서 물에 빠져 죽은 뒤 수신(水神)이 되어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註)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묵은과 박은이 신록사 풍경 속에서 수신(水神)이 된 옛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모든 잡사(雜事)를 떨치고 싶은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의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여주 신록사 ㉮



강 건너에서 바라본 신록사 풍경

문집 <음취현유고> 제3권에 실린 '배 안에서 신록사를 바라보며'라는 시는 강물에 든 배에서 신록사를 바라보며 풍경을 읊은 것이다.

조각배 띄우고서 고향땅 돌아가려 하니 동풍이 마침맞게 나의 옷깃을 불어 주네. 스님과 헤어지려 하니 왜 이다지 섭섭한지 쇠한 나이 되고 보니 다시는 또 못 볼까봐.

첫 번째 시에서는 나이 들어 이별을 앞둔 심경이 담담히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애석함을 드러낸다.

승주동림운수간(僧住東林雲水間)
서린객황우상관(西隣客况偶相關)
차귀혼몽응래왕(此歸魂夢應來往)
포식강산승해산(飽識江山勝海山)

동림의 구름과 물 사이에서 사는 스님과 서쪽 이웃 나그네가 우연히 서로 어울렸네. 돌아가도 꿈속에서 분명히 또 오고 가리 강산이 해산보다 나는 걸 실컷 맛봤으니.

최립은 중국 동진 시대의 혜월(慧遠 334~416) 선사(僧)가 여산 동림사에 있었던 점을 들어 절신록사를 '동림'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서쪽 이웃 나그네'라는 어구로 대조를 이루었다. '서쪽 이웃 나그네'는 초나라 시인 송옥(宋玉 BC290? ~222?)이 절세미인의 서쪽 이웃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오랜 고사를 통해 절과 세속을 대비하고 신록사 스님과 자신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도 이별의 순간을 맞았으니 꿈속이라도 다시 오고 또 오리라 다짐하는데, 이 대목은 마치 애절한 남녀의 이별 장면 같이 애잔하다.

스님과 이별하는 선비의 마음

최립(崔 1539~1612)도 여강과 신록사를 무척 좋아하고 스님들과 교분이 있었던가 보다. 그의 문집 <간이집(簡易集)> 제7권 '여강록(羅江錄)'에는 '신록사(神勒寺)의 혜식(惠式) 장로(長老)와 작별하면서 그의 시권(詩卷)의 시에 차운하여 남겨 주다'라는 제목의 시가 2수 실려 있다.

편주일방고원귀(扁舟一放故園歸)
흠유동풍취아의(恰有東風吹我衣)
각향거승추장별(却向屠僧別)
쇠년상시후기희(衰年常是後期稀)



새로 발매된 '해금소리 5-추억' 음반표지



성의신이 이끄는 불교 실내악단 마하연(1993년 창단)의 공연 장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신성神性이자 불성佛性이다

"나는 만유 위에 있는 빛이라. 내가 곧 만유라. 만유가 나로부터 나왔고 또 만유가 나에게 이르노라. 통나무를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비극에서 마법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박동덕 지음 | 신국판 | 487쪽 | 19,500원

예수의 깨달음과 비전을 담은 비밀 성경 '도마복음' 그의 명상禪적인 가르침을 2,000여 년만에 해석하다

KBS, EBS 등에서 유명 교양/다큐프로그램을 연출한 저자 박동덕 씨(방송프로덕션 '비에마로' 대표)는 2001년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를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왔다. 2010년 여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쓰러져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임사(臨死)체험 후 '왜 돌아왔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마복음'을 통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無量光無量壽)이 바로 신성인 동시에 불성임을 확신하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도마복음을 본격적으로 해석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설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계·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사,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사(自作)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중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중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볼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5@daum.net